

## 배봉두메십리길 ⑦

숲과 삶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



걷는구간	용두근린공원(용두역)→고미술상가→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답십리2공원 →답십리1공원→배봉산둘레길→ 배봉산 연육교→배봉산쉼터
걸는거리	9.1km
소요시간	3시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중급코스



배봉산 자락길은 무장애 숲길로 보행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수종이 숲을 이루고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두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이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변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배봉두메십리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서울시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에 깊은 산골 같은 곳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그러나 배봉산과 답십리산의 숲길을 걷고, 손때 묻은 옛 가구나 소품들을 전시해놓은 고미술상가 등을 지나다 보면 ‘배봉두메십리길’에 얽힌 궁금증이 한 께에 해결될 것이다.

용두근린공원을 출발하여 곧게 뻗은 산책로를 30분 정도 걷다 보면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나온다. 답십리는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왕도를 정하려고 도성에서 10리 떨어진 이곳을 밟았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손때 묻은 옛 가구와 생활용품들, 오래된 미술품, 그리고 독특한 소품들까지 시대의 향수를 느끼며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얽힌 사연을 묻거나 가격을 흥정하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 뚜벅뚜벅 답십리를 밟으며 30분 정도 더 걸어가면 촬영소 영화전시관이 보인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답십리촬영소 영화 전시관을 구경하고 나오면 숲길이 시작된다.  
배봉산 황토길을 걸으며 힐링해 보자.

배봉산정상공원



1964년에 지어진 스튜디오로 그 당시 영화 촬영의 최고의 명소이자 한국 영화의 산실이었다고 한다. 8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1969년 이만희 감독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답십리 촬영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촬영소 영화전시관은 마치 박물관과 숲길을 나누는 관문과 같다. 전시관을 지나면 동대문구의 산소통이라 할 수 있는 답십리공원과 배봉산의 나지막한 숲길이 쭉 이어진다. 산이 절대 부족한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산지에 조성된 숲길이다 보니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 능선과 중턱을 따라 산책로가 잘 닦여있고, 곳곳에 편의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휴식처 노릇을 하고 있다.

- 📍 지하철 2호선 용두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서울교통공사 본사 방향으로 2km 걸어가면 사거리가 나온다. 서울동답초등학교 방향으로 1km 걸어가면 답십리공원 입구가 나온다.
- ☎ 02-2127-4778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 ⓪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화장실, 휴게시설 영화전시관에 있음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